



**시민과 함께 2019 / 7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6차 강좌 (7월 8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지난주 미국 대공황기 정책적 대안으로 진행된 FSA사진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틴파 “the last resort”>를 주제로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8일(월) 19시~20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마틴파 “the last resort”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운영위원)



**<사진으로 역사읽기> 7월 1일 5차 강좌 모습**

## ■ 역사 속의 오늘

### 육신의 죽음으로 國魂을 살린 이 (1907년 7월 14일)

1907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 3명의 특사가 혜성처럼 등장한다.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한성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전달했다.

“이곳(헤이그)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판사 이준, 전 공사관서기관 이위종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상설은 대한제국 황제를 알현한 후 4월 20일경 이준과 함께 한국을 출발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가 이위종과 만나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 6월 25일 이곳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대한제국 황제의 전권위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계속 정탐하는 중임”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명의 헤이그 특사는 이렇게 네덜란드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기만 했던 네덜란드에서 일제가 행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소리 높였던 세 명의 조선인 가운데 한사람인 대한제국 전직 판사 이준.

185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이준은 1884년 함경도시에서 장원 급제 했고 1895년 법관양성소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이준은 이듬해 한성재판소 검사보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2월, 아관파천이 일어나 일본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이준은 서재필을 만나 협성회를 조직하여 구국 운동을 전개하고 독립협회에 가입한다. 1904년 8월 일제가 송병준 등 친일파들로 하여금 일진회를 조직하여 매국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이준은 같은 해 12월 12일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윤하영, 양한묵 등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 동회의 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회장으로서 반(反)일진회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황해도 황주 철도에 유배되기도 했다.

1906년에는 국민교육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펼치고 전 재산을 동원해 돈화문 근처에 야학인 보광학교를 설립, 청년계몽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오상규, 유진호, 설태희 등과 함께 고향인 함경도에 한북흥학회를 조직해 함경도 지방의 애국계몽운동과 교육구국운동의 발흥에 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대한자강회에 가입해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안창호, 김덕기, 이동녕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여 장기적인 구국운동을 추진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를 들은 이준은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 고종의 동의를 받게 된다.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까지는 여러 곡절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과거 특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던 이용익의 죽음이었다. 고종은 당초 1906년 8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만국평화회의 때도 이용익을 파견하려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국평화회의가 1년 가까이 연기됐고, 해외를 떠돌던 이용익이 1907년 초 갑작스레 사망하는 바람에 특사 외교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 급히 만들어진 카드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었다.

먼저 출발한 이상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삿페르부르그에 도착하여 러시아 공사 이범진을 만났다. 이범진은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였으나 세계정세를 관망하기 위하여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이준은 1907년 4월 22일 가족들과의 고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서울역을 떠나 부산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그곳에서 이상설과 합류했으며 5월 21일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6월 4일 삿페르부르그에 도착했다.

삿페르부르그에 도착한 이준과 이상설은 이범진, 이위종 두 부자 만나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토론하며 [장서]의 공고사(控告詞)를 불어로 번역한 후 6월 19일 그곳을 출발하여 25일에 만국평화회의 개최지인 헤이그에 도착했다.

6월 28일 [장서]와 그 부속문서인 [일인불법행위(日人不法行爲)] 책자를 40여 참가국 위원들에게 보냈으며, 그 다음날 러시아 대표이며 평화회의 의장인 넬리도프백작을 방문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해 만나지 못했다. 이어 30일에는 부회장이자 네덜란드 전 외무대신 뵘포로를 방문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어 네덜란드 외무대신 테츠(M. Van Tets)에게 서한을 급송하여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평화회의에서의 발언은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거절당하고 말았다.

1907년 6월 15일부터 1개월간 개최되었다. 당시 참가국은 46개국이고 대표는 약 247명이었다. 이상설을 비롯한 3명의 특사는 만국평화회의 의장에게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인 공고사를 제출하고 한국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일본과 영국대표의 노골적인 방해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을 비롯한 특사단은 일제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부당성을 웅변으로 호소했다. 각국 신문기자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으며 <평회회의보(Courrierde laConference)>에 [장서]의 전문을 게재 했다.

7월 9일에는 협회 회합에 귀빈으로 초대되어 연설 할 기회를 얻어 이위종으로 하여금 불어로 연설하도록 했다. 이위종의 열성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들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의 청원에 끝내 공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준은 헤이그에서 지병이었던 뱀 종기가 도져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에는 이견이 많은데 일설에는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도 한다. 1907년 7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 "의사가 자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의 자결을 호외보도한 것을 근거로 할복자살이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종기가 스트레스성 난치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울분으로 인한 병사가 정확한 사인일 듯 싶다. 한편 일본 통감부는 8월 9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준에게 궤석재판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1907년 7월 14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한 조선인이 일제의 협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외치다 숨을 놓았다.



헤이그로 달려간 3인, 왼쪽부터 이준·이상설·이위종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원효의 사랑이 담긴 소요산 자재암, 세 번째 이야기 - 대웅전과 자재암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운암을 지나면, 잠시 후 물 쏟아지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자재암 경내에서 옥류폭포의 물소리가 울려나는 탓이다. 이곳은 참으로 물이 많은 협곡이다. 앞서 허목 선생이 지적한 대로, 냇가에 널린 바위 위의 이끼들이 언제나 봄날처럼 푸른, 그 녹녹한 분위기를 꿰뚫고 나는 물소리다. 폭포소리에 나뭇가지들이 수런거리고, 잎사귀들은 귀를 쫑긋거리다. 물소리에 잠시 마음을 뺏길 때쯤 자재암이 활연하게 나타난다. 이토록 좁은 협곡 안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특별하게 펼쳐졌을까?

작은 계단 앞으로 경내에서 가장 큰 덩치를 지닌 요사채가 우선 보인다. 그리고 안쪽으로 대웅전과 자재암이 차례로 거리를 둔다. 제일 안쪽의 절벽 좌우에는 나한전과 옥류폭포가 나란히 제 얼굴을 드러낸다. 삼성각은 대웅전 뒤쪽의 가파른 계단 위에 외롭다. 모두가 좁은 공간을 염두에 둔 배치다.

자재암의 대웅전은 참으로 곱게도 생겼다. 원효스님이 요석공주와 사랑을 움푹우며설총을 기른 곳답게 아주 기품이 넘친다. 건물의 단정한 생김새도 생김새려니와 곱고 세밀하게 칠한 단청이 빛을 뽐낸다. 공주의 아리따움이 저랬을까? 스스로 도도하지만 이상스러울 만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완숙한 아름다움이다. 요석공주를 배필로 삼은 뒤, 속세로 뛰어나간 원효스님의 포용력 때문일까?





자재암 대웅전 도도하면서도 완숙한 아름다움이다. 요석공주의 자태가 연상된다.

스님은 요석공주를 맞이하고부터, 스스로 소성거사 혹은 복성거사라고 일컬으면서, 승복을 벗고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가야금을 뜯기도 하고, 술집에 출입하며 저잣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잠들곤 하였다.

어떤 날에는 산수 자연 속에서 좌선을 하거나 법문을 펼치고, 『화엄경』의 내용을 쉬운 노래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민중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스님의 발길은 전국을 두루누볐다. 이는 중생구제를 위한 원효스님만의 완전히 새로운 포교 방법이자, 교화 방식이었다. 스님은 이내 민중들의 우상이 되었다.

‘원효’란 법호에는 ‘첫 새벽’이란 뜻이 담겨 있다. 진골眞骨출신 으로 불법을 통해 민중 통치를 꾀한 자장慈藏이나, 화랑도에게 베푼 세속오계世俗五戒를 통해 사회 교화를 도모했던 원광圓光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스님이 바로 원효다.

원효는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탈피하여, 중생을 위한 중생의 불교로 거듭나는 대전환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원효는 민중에게 다가가 민중불교의 '첫 새벽'을 연 선각자요, 선지자였다. 그리하여 원효는 한국 불교사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친근한 스님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대웅전 안에 모신 부처님과 협시불은 말할 필요도 없이, 탕화나 단집에서도 고결하기 그지없는 기품이 넘쳐 난다. 제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아주 세련되게 꾸미고 고도의 기술로 다듬은 칠보공예처럼, 우리 민족사에 높이 내걸린 원효스님의 찬란한 명성처럼 대웅전 안팎은 눈부시다.

원효스님은『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이장의二障義』 등의 수준 높은 불교 저술로 당대에 벌써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이들 저술에 담긴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일심一心이다. 일심이 세상의 근원으로, 화합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일심을 지닌 중생들은 너나없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므로, 부질없이 다툼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원효는 이렇게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당시의 이분법적인 불교계의 다툼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였다. 각자의 주장을 서로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가치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서로 단합하자라는 이론이었다. 원효가 제창한 '화쟁론和爭論'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신라 사회를 단결케 하였고, 마침내 삼국통일이란 대업을 이루는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다.

원효스님과 동시대를 활약했던 명승으로는 의상과 자장이 있다. 이 중에 특히 의상은 원효보다 여덟 살 아래였지만, 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귀족 출신이었던 원효와는 달리 의상과 자장은 신라의 왕족이었다. 자장은 원효보다 연상으로 미루어진다.

이 세 분의 스님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칭호에서 각각 구별된다. 자장은 율사律師, 의상은 법사法師, 원효는 성사聖師로 일컬어진다. 고려 때에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원효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업적을 높이 존경하여 '성사'로 일컫기 시작하였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탁월한 불교 지식과 주저 없는 무애행無碍行으로 새롭게 전래된 불교를 세상의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신라 사회를 대통합의 길로 이끈 원효스님의 공로가 뒤늦게나마 가장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원효스님이 창건했다는 절들이 수없이 많다. 이는 원효스님이 얼마나 민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는지를, 거꾸로 스님이 중생들에게 얼마나 사랑 받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뚜렷한 증거다. 중생의 바다에 몸을 던져,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 교화[上求菩提下化衆生]에 앞장섰던 '성사'가 원효스님이다. 스님의 가없는 사랑 가운데 한 조각이 지금 이렇게 고결하고 단아한 자재암으로 남아, 다시금 내일의 청정한 세상을 기약하고 있다.

자재암은 새로 지은 건물이다. 그러나 대웅전과는 달리 아주 검소하다. 원효스님이 살았던 시대만큼 소박하게 꾸미려고 노력한 흔적이 고맙다. 그러나 자재암은 일찍부터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를 간직해 오으로써, 유서 깊은 암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는 세조가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 1464년에 『금강경金剛經』 언해본과 동시에 간행한 첫 한글 불교 경전이다. 그래서 세인들의 각별한 이목을 끌었으니, 보물 1211호로 지정을 받은 일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 세조가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1464년에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간행한 첫 한글 불교 경전으로 보관 상태가 아주 좋다.

다음 주는 “원효의 사랑 담긴” <소요산 자재암> 네 번째 이야기 “옥류폭포와 나한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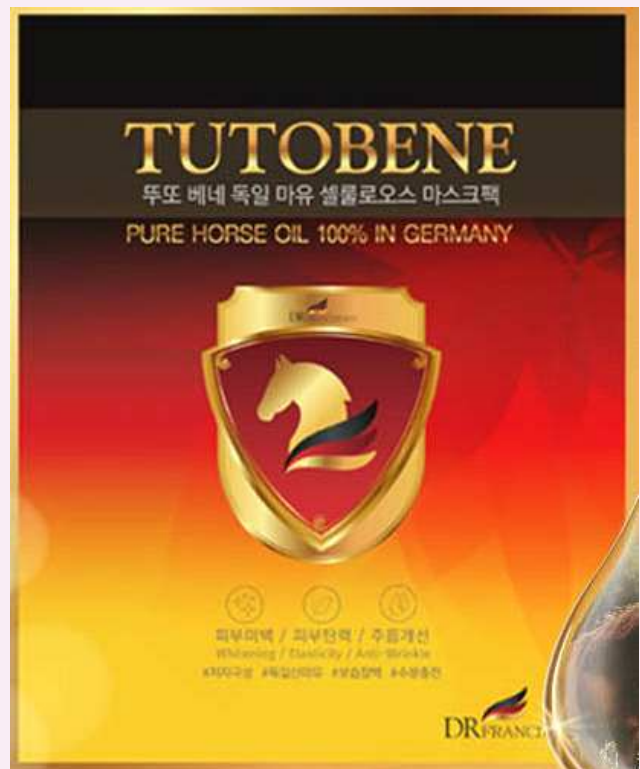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마유팩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